

인상씨도 웃어도 같은 하루라면 내가 좋아하는 야구, 재미있게!

늘 같은 마음가짐, 나를 넘는 비결
웨이트 열풍, 후배들도 루틴 생겨
나만 잘한다고? 다 못해서 지는 것
LG에 간절하지않은 사람은 없다

“웃어도 하루, 인상 씨도 하루라면
웃는 게 낫다.”

LG 트윈스 김현수(30)의 오랜 신조다. 초록빛 그라운드에 들어서는 그의 얼굴엔 늘 미소가 뒤흔돈다. 술한 위기에 달았고, 수없이 난관을 넘어서온 베테랑의 태연함이다. 이렇듯 김현수는 2018시즌 LG에 붙어 닥치는 풍파에 묵묵히 맞서고 있다. 정신적으로나 전력적으로나 그는 이미 명실상부한 팀의 중심이 됐다. 15일까지 소속팀의 115경기에 개근 중인 김현수는 마치 매일 새로운 출발선에 서는 사람 같다.

●몸은 달라도 마음은 같으니까

‘타격 기계’ 김현수의 기량을 두고선 더 이상 논할 것이 없다. 타율, 안타, 득점, 타점 등 각종 타격 지표 상위권에 당연한 듯 자신의 이름을 올려줬다. 2년부터 5년까지 어느 타순에 가져다 뒀도 제 몫을 해내는 김현수는 LG 타선의 믿을 구처로도 통한다. 강력하고도 꾸준한 활약은 김현수가 사랑받는 가장 근본적인 이유다.

-팀의 전 경기에 나서고 있다. 체력적인 어려움은 없나?

“힘들다. 힘들지만 경기에 나갈 수 있을 때 많이 나가는 것 자체가 참 감사한 일이다. 감독님께서 선수를 믿어주는 만큼 선수에게도 큰 책임이 따른다고 생각한다. 주어진 책임을 잘 지키기 위해 몸 관리도 열심히 하고 있다. 힘들어도 이 정도는 모두 똑같이 힘든 수준이라 생각한다.”

-각종 타격 성적에서 스스로를 뛰어넘고 있다. 원동력이 뭘까?

“아무래도 많은 시즌을 치르면서 쌓아온 정신력이다. 가장 좋을 때 가장 안 좋은 일이 오고, 가장 안 좋을 때 가장 좋은 일이 찾아온다. 그렇기 때문에 이 두 가지 상황을 차라리 겹쳐서 생각하는 거다. 편안하게. 항상 기본 좋은 일만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으로. 몸은 똑같을 수 없지만, 마음가짐은 늘 똑같이 할 수 있다. 안 좋은 날도 좋은 날처럼, 좋은 날도 안 좋은 날처럼.”

●나를 지키는 일, 후배를 이끄는 일

김현수가 LG에 새 등지를 튼 뒤 ‘변화’라는 단어가 꾸준히 따라 붙는다. 팀 분위기에 활력을 불어넣고, 채은성을 비롯한 유망주 후배들의 잠재력을 터트린 데 앞장섰다는 평가다. 김현수의 철저한 자기 관리는 자연스레 팀 후배들의 좋은 본보기가 됐다.

-LG에 웨이트 열풍이 불게한 주역이다.

“나는 그저 내가 가진 루틴을 따른 거다. 체력이나 힘을 최대한 유지하려는 목적으로 웨이트를 한다. 여기에 후배들이 같이 하겠다며 하나 둘 시작하다 보니 선수들 저마다의 웨이트 루틴을 갖기 시작했다. 야수를 담당하는 박현희 트레이닝 코치님께서 워낙 체계적으로 잘 챙겨주신다.”

-함께 중심 타선을 이루는 채은성이 몰라보게 성장하면서 본인의 특징 기록도 올라갔다.

“은성씨도 타점이 오르니 자신에게 좋



김현수는 소속팀 LG 트윈스의 전 경기에 나서며 책임감을 보이고 있다. 후반기 팀 승률이 5할을 밑도는 힘든 상황에도 그는 늘 웃는다. “인상 씨도 하루, 웃어도 하루라면 웃는 게 낫다”는 게 그의 철학이다. 스포츠동아 DB

은 것 아닐까? 서로 윈윈이다(웃음). 은성씨는 내가 보듬지 않았다. 누구보다도 열심히 하고, 관리를 잘하는 선수 중 한 명이다. 그걸 지켜보면서 ‘올 시즌 잘 했으면 좋겠다’고 생각했다. 같이 열심히 했는데, 성적이 안 나면 내가 미안한 일이다. 다행히 성적이 잘 나와 좋다.”

●야구가 재밌다

-야구장에서 늘 밝은 얼굴을 하고 있다. 노력의 결과일까?

“경기에 많이 나가면서 쌓은 노하우다. 인상 씨도 하루, 웃어도 하루면 웃는 게 낫다고 생각한다. 예전에는 야구장에 서는 웃으면 안 되고, 무조건 전투적으로 해야 한다는 생각을 했다. 지금도 그에 대한 생각은 변함이 없지만, 매일 야구를 하는데 스트레스만 받기보다는 조금이라도 더 재미있게 하는 게 좋지 않나. 여유를 갖자는 의미다. 좀 더 여유 있게. 누가 봐도 여유 있어 보이는

사람이 강해보이니까.”

-벌써 오랜 경력을 쌓았다. 아직도 야구를 하며 설레는 순간이 있을까?

“여전히 야구장에 나와 야구를 하는 것 자체가 재미있다. 그래서 선수를 더 하고 싶고, 선수 생활을 하고 있는 것 같다. 야구를 좋아하고, 아직 재미있다. 내가 원하는 야구를 아버지가 시켜주셨고, 나도 야구를 좋아해서 선수를 했으니까 행운이라고 생각한다.”

김현수에게 끊임없이 숙제가 주어진 다. 2018 지카르타-팔렘방 아시안게임 대표팀의 주장을 맡은 데다 대회 개막 전까지 소속팀에서 치르는 정규리그에서도 최선의 결과를 만들어야 한다. “나 혼자 잘하고 있다고는 생각하지 않는다. 그저 다같이 못해서 지는 것이다. 경기에서 이겼다면 다같이 잘한 것이다. 우리 팀에서 간절하지 않은 사람은 없다. 그것만 알아주셨으면 좋겠다.”

서대영 기자 seody3062@donga.com



‘K머신 샘슨’ 역사적 도전

올해 9이닝당 삼진 11.07개 압도적
역대 1위 구대성 11.85개도 사정권

‘가성비’를 따지며 ‘성장형 외인’을 기대했다. 하지만 팀을 넘어 리그 전체의 에이스 중 하나로 군림하고 있다. ‘삼진 머신’으로 거듭난 키버스 샘슨(27·한화 이글스)이 KBO리그 새 역사에 도전 중이다.

샘슨은 15일까지 24경기에 등판해 139이닝을 던지며 12승7패, 평균자책점 4.27을 기록했다. 2007년 세드릭 바위스(11승)가 기록한 한화 외국인 최다승 기록을 갈아치우며 에이스로 거듭났다. 한화는 올해 그에게 연봉 40만 달러(약 4억5000만원)를 안겨주며 성장하는 모습을 기대했으나 적응기는 필요 없었다.

비결은 탈삼진 능력이다. 제구력이 아쉬긴 하지만 최고 150km대 중반의 속구에 타자들이 쩔쩔 매고 있다. 한화 한용덕 감독 역시 “삼진 능력은 결국 위압감이다. 기대 이상으로 잘해주고 있다”며 칭찬했다.

이미 한화의 역사를 쓴 그는 KBO리그의 전설로 남을 준비를 하고 있다. 올 시즌 9이닝당 11.07개의 삼진을 기록 중인 샘슨은 지금의 페이스를 유지한다면 2014년 릭 밴덴헐크(당시 삼성 라이온즈·10.61개)를 넘어 역대 외인 9이닝당 탈삼진 1위에 오른다.

외국인은 물론 리그 전체 1위도 가시권이다. KBO리그 역대 9이닝당 탈삼진 1위는 1996년 구대성(당시 한화)이다. 55경기에 등판해 139이닝을 소화하며 삼진 183개를 빼앗았다. 9이닝당 탈삼진은 11.85개. 그 다음은 1993년 선동열(당시 해태 타이거즈). 49경기에서 126.1이닝을 책임지며 164개의 삼진을 기록했다. 9이닝당 탈삼진은 11.68개였다. 샘슨이 아시안게임 브레이크 직후 조금만 더 페이스를 끌어올린다면 충분히 도전할 만하다. 지금까지의 활약만 놓고 보더라도 복명이라고 불리기에 부족함이 없는 샘슨이다.

최익래 기자 ing17@donga.com

NC전 승률 3할→7할 탈 꼴찌 우위 점한 KT

유달리 쩔쩔 매던 상대에게 그간의 빛을 톡톡히 갚는 중이다. KT 위즈가 ‘천적’으로 군림하던 NC 다이노스에 우세를 이어가고 있다. KT가 탈꼴찌 전장에서 앞서고 있는 이유다.

KT는 2015년 1군 진입 이래 유달리 NC에 약했다. 지난해까지 3년간 NC 상대 전적은 15승31패2무, 승률은 0.326에 불과했다. KT가 창단 이래 유일하게 ‘3연전 스윕승’을 거두지 못했던 팀도 NC였다.

올해는 다르다. KT는 4월 10~12일 마산 3연전에서 썩살이 승리를 거두며 분위기를 바꿨다. 이후에도 결과는 좋았다. 14일까지 14경기에서 10승4패를 거뒀다. 남은 두 차례 맞대결 결과와 상관 없이 우세를 확정했다.

올해는 NC와의 상대 전적 우세가 중요하다. 그간 리그 상위권이었던 NC가 최하위로 내려앉았기 때문이다. 9위 KT와 10위 NC의 승차는 2경기. 만일 KT가 NC 상대로 5할 승률만 기록했어도 이들의 순위는 뒤바뀌었을 것이다.

때문에 14일부터 16일까지 수원에서 치르는 NC 3연전은 KT로서 건곤일척의 승부였다. 1승2패만 기록하더라도 시즌 첫 최하위 추락을 맞보기 때문이다. KT 내야수 오태곤은 15일 맞대결에 앞서 “이번 3연전에서 위닝시리즈 이상을 거두지 못하면 꼴찌로 추락하는 사실을 어찌 모르겠나”며 “선수들끼리도 ‘반드시 좋은 결과 내자’고 서로 독려하고 있다”고 밝혔다. 김진욱 감독은 조금 더 구체적인 설명을 보냈다. 김 감독은 “순위가 달린 매치업이다. 결국 이것이 부담으로 작용하느냐, 투지조 이어지느냐의 차이”라며 “이런 상황에서는 기세가 중요하다. 14일 경기 중요성이 컸는데, 잘 잡았다”고 평가했다.

수원 | 최익래 기자



두산 김태형 감독 SK 힐만 감독 삼성 김한수 감독

프로야구 AG 휴식기? 지옥의 체력전 스타트

1군 선수들 감각유지 위해 퓨처스 출전

KBO리그는 2018자카르타-팔렘방 아시안게임(AG)이 열리는 18일부터 9월 2일까지 리그를 중단한다. 일정표만 보면 대표팀에 선발된 인원을 제외하고 각 팀 1군 주축 선수들은 2주 이상 탈골한 휴식을 보낼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그러나 현실은 이와 반대다. 대부분 팀들은 짧은 휴식 후 1군 선수들을 퓨처스리그에 투입한다. 경기감각 유지를 위해서 어쩔 수 없는 선택이다. 기록적인 폭염을 관통한 KBO리그 선수들은 144경기의 1군 공식전 외에도 퓨처스 경기를 뛰며 역사상 가장 긴 리그를 치르는 셈이다.

KBO는 오는 21일부터 다음달 2일까지 퓨처스리그 경기를 1군 경기장에서 치른다. 1군 선수들도 엔트리 변동 없이 출전이 가능하다.

두산 베어스는 17~18일 선수단 휴일이 다. 이후 2일 훈련, 1일 휴식이 이어진다. 김태형 감독은 “24~26일 수원 KT위즈와 원정 퓨처스 경기에는 1군 젊은 선수들을 보내고 28일부터 9월 2일까지 경기(화성, LG)는 베테랑 선수들도 출전하면서 경기 감각을 유지시킬 계획”이라고 말했다.

삼성 라이온즈는 1군 코칭스태프가 퓨처스 경기를 지휘하며 9월 5강 싸움 대비에 총력을 다할 계획이다. 김한수 감독은 “1군 선수들을 주축으로 경기를 치를 생각이다”고 말했다. SK 와이번스도 트레이 힐만 감독이 덕아웃에 앉아 1군 선수들을 적극적으로 투입할 계획이다.

관건은 체력이다. 경기감각을 위해 2주간 훈련과 실전을 반복하다 9월 마지막 순위 경쟁에 뛰어들어야 한다. 대표팀 선수들은 낮선 곳에서 총력전을 치르고 돌아온다. 극한의 체력전은 올 시즌 마지막 순위 싸움의 큰 변수다.

합설 | 이경호 기자 rush@donga.com